〈법화경〉 좋아하는 것 엄청난 공덕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㉗ 법화경 공덕

그때 미륵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복을 받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미륵보살마하살에 이르셨다.

"아일다여, 여래가 열반한 후에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나 그 밖의 지혜가 있는 이로써 어른이나 젊은이나 이 경전을 듣고 기뻐하고 법회에서 나와 다른 곳에 가서, 승방이나 한적한 곳에서나 도시, 거리, 크고 작은 마을에서 법회에서 들은 대로 부모, 친척, 스승, 친구들을 위하여 능력 따라 설해주면 이들이 듣고 나서 기뻐하여 다시 남에게 말하고 이렇게 하여 점점 전해져서 제50번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아일다여, 그 50번째 전해들은 선남자 선여인의 기뻐하는 공덕을 내가 이제 말하리니 잘 들어라.

어떤 시주가 4백만억아승지 세계 안의 육취(六趣)의 중생들이 복을 구하기에 그들의 요구대로 즐길 물건을 모두에게 보시하되, 하나하나의 중생들마다 염부제에 가득한 금, 은, 유리, 자거, 마노, 산호, 호박 등 온갖 아름답고 진귀한 보배들과 코끼리, 말이 끄는 수레와 칠보로 된 궁전, 누각 주었다. 이 큰 시주(施主)가 이렇게 보시하기를 80년을 채우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미 중생들에게 즐길 물건 보시하여, 바라는 대로 주었으나, 이들 모두 이미 늙어 백발에 주름이 져서 죽을 날 멀지 않으니, 내 응당 불법으로 가르쳐 인도하리라.' 하고, 곧 이 중생들 모아놓고 법을 설하여 교화하여 가르치고 이익이 되게 하며 기쁘게 해, 일시에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얻게 하며, 온갖 번뇌가 없어져 깊은 선정에 자재함을 얻게 하고 여덟 가지 해탈을 갖추게 하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큰 시주의 얻는 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미륵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사람의 공덕이 매우 많아서 한량없고 그지없겠나이다. 만약 이 시주가 다만 중생에게 온갖 좋아하는 것만 보시했다 하여도 공덕이 한량없겠거늘, 하물며 아라한과를 얻게 해 준 것이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에게 이르셨다.

"내 이제 분명히 그대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온갖 보시한 물건으로 4백만억아승지 세계 육취의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아라한과를 얻게 해 준다 해도, 그로 인해 얻는 공덕이 이 50번째의 사람의 묘법연화의 가르침 게송 하나를 듣고 기뻐하는 공덕만 못하니라. 백분, 천분, 백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 산수, 비유로서도 능히 알 수가 없느니라.

아일다여, 이와 같이 50번째 사람이 차례로 전해 받아 법화의 가르침 듣고 기뻐하는 공덕도 오히려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이거늘, 하물며 맨 처음 법회 중에서 듣고 기뻐하는 자는 더 말할 게 있겠느냐. 그 복이 더욱 뛰어나 한량없고 그지없어 아승지로는 견주지 못하니라."

'수희공덕품'에 나오는 위의 이야기는 〈법화경〉을 듣고 기뻐할 때 얻어지는 공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설하는 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들은 법문을 다른 곳에 가서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준다. 전해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준다. 이렇게 전해져 50번째 전해들은 사람의 공덕을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화경〉을 수지(受持)하는 것이 탑을 세우고 절을 짓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 데서 경의 가치를 천명한 것처럼 〈법화경〉을 좋아하는 것이 복이 되고 엄청난 공덕이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금강경〉에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七寶)를 보시한 복덕보다도 경 4구게(四句偈)를 수지하는 복덕이 더 많다"고 한 말과 같다. 〈화엄경〉은 佛을 설하고 〈법화경〉은 法을 설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법을 듣고 생겨나는 기쁨을 법희(法喜) 또는 법열(法悅)이라 하는데 〈법화경〉이 법을 설한 경이므로 법희의 공덕을 극대화해서 말하고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한 번 보살은 영원한 보살"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㉗ 보살의 자서수계(自誓受戒)

걸음을 배우느라 뒤뚱거리면서 천천히 발을 떼어놓는 아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입가에 엷은 웃음이 번진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는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 울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써서 얼굴이 새빨개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기를 일으켜 세워서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옮겨 디디게 한다. 이런 시도는 반복될 것이고,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 혼자서 성큼성큼 걸을 것이다.

대승 보살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이도 걸음마를 뗀 아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보살은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 하며, 다른 이를 이롭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일정한 경지에 다다른 보살이 아니라면, 보살의 마음가짐은 상황에 따라 느슨해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한다. 이럴 때마다 보살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스스로 북돋우기도 하고, 다른 이에게 격려나 위로를 받기도 한다. 보살의 삶을 맹세한 이가 늘어나면서 자신의 내적 결의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절차가 생기게 된다.

보살의 수계에 대해서는 중기 대승경전에 산발적으로 나오지만, 〈유가론(瑜伽論)〉의 보살지(菩薩地)에는 보살의 수계작법(受戒作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논의 '계품(戒品)'에는 자서수계(自誓受戒)가 설해지는데, 계사(戒師)가 될 만한 인물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방법이다. 즉, 수계 희망자는 불상 앞에서 자신이 직접 모든 부처님이나 모든 보살에게 말을 거는 것에 의해 수계를 행한다. 이때 수계 희망자는 자신의 맹세를 시방의 모든 불보살에게 말을 걸어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런 수계작법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인 까닭에 보살계의 특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예전의 수계작법은 종타수계(從他受戒), 즉 다른 이로부터 계를 받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비구가 구족계를 받기 위해서는 삼사칠증(三師七證), 즉 3명의 스승과 7명의 증인이 필요했다. 여기서 3명의 스승은 계를 주는 계화상(戒和尙), 청결을 증명하는 갈마사(葛磨師), 의식을 가르쳐 주는 교수사(敎授師)이다. 이들로부터 수계 희망자가 계를 받는 과정을 지켜보는 7명의 입회인이 있어야 수계가 성립되었다. 반면에 자서수계의 경우에 수계희망자는 명상이나 꿈속에서 석가모니불이나 다른 부처님 또는 보살로부터 직접 계를 받으며, 수계의 성립을 지켜보는 증인은 시방의 모든 불보살이다. 따라서 자서수계에서는 불보살에게 보살의 서원을 스스로 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보살계는 이전의 계와 달리 이 세상에서 일생 동안 지킬 것을 맹세하여 받는 계가 아니다. 보살계의 기반이 되는 보살행은 보리심(菩提心)을 일으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최종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수계 희망자는 보살로서의 자각이 있어야만 하며, 보리심을 일으켜야만 한다. 다시 말해 수계희망자는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계를 통해 진정한 보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살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또는 그다음 세상에서도 계속 보살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구호를 빌린다면 '한 번 보살은 영원한 보살'인 것이다.

동아시아불교에서는 자서수계로 보살계를 받는 경우, 수계 희망자에게 철저한 참회를 요구한다.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동안 지었던 악업을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그의 마음에서 악업이 사라질 것이다. 이로 인해 그 마음이 청정해지면, 보리심을 일으켜 보살로서 살아갈 것을 스스로 맹세하고 보살계를 받는다. 따라서 보살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도 수많은 불보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③ 괴로움 원인과 윤회 비밀 (하)

선업 의지 함양이 곧 불교수행

만약에 무명업식과 근본번뇌로 인해 마음에 무지와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음은 업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뢰야식 속에 선업과 불선업의 업종자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마음은 무명업식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생멸하며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이미 영겁의 윤회 삶 속에서 아뢰야식 속에 끝없는 업의 종자를 저장시켜왔고, 또한 제7말나식이 항상 세심하게 사량하는 항심사량(恒審思量)의 특성으로 인해 근본 번뇌와 마음의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번뇌로 요동치며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결국 중생은 이로 인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스스로 일으켜 업을 짓고, 지은 업의 과보로 끝없는 윤회의 고통을 겪으며 끝없는 업력을 일으키며 갈애와 무명번뇌로 요동치며 스스로를 구속하며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업력에 의해 만들어진 몸과 마음은 스스로를 오온의 욕망에 구속시키며 오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본무명과 마음의 오염과 번뇌의 장애를 가진 마음은 무지의 마음을 일으켜 사견(邪見)에 구속시켜 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불자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근본무명과 마음의 장애를 일으키는 마음이지만 아뢰야식 속에 저장된 선과 악의 업종자(業種子)들은 무기성(無記性)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깥 경계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7말나식과 제6의식에 의해 바깥 경계대상인 연(緣)을 만날 때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선악의 업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식기관인 육근이 바깥경

자신의 괴로움 '自業自得 自作自受'
행복 위해 오염심 · 번뇌 제거하고
불성을 의지해 삼학으로 훈습해야

계인 육경을 만날 때 그 순간 집착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업력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좋은 업력과 나쁜 업력을 일으키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내 마음의 의지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지만 강하다면 업력에 따르지 않고 악업을 끊고 선업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업을 키우고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의지를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수행입니다.

불자 여러분! 만약 평소에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의 실천으로 진여본성에 훈습(薰習)하여 마음에 반야지혜가 발현되어 있다면 나쁜 업력을 인욕(忍辱)으로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업을 불러일으키는 의지적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와는 반대로 탐진치 삼독심으로 몸과 마음이 집착과 욕망으로 염법(染法)을 훈습시켜 놓았다면 삼독심에 이끌려 나쁜 업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또 다른 악업을 짓기 때문에 악도를 벗어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나의 괴로움은 누구 탓이 아니라 모두가 내가 지어서 내 스스로 받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이요 자작자수(自作自受)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벗어나 스스로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심과 번뇌를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불교 수행은 결국 오염된 마음을 청정한 본성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염심과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업을 짓는 주체인 마음을 스스로 깊이 살펴 통제하고 업력으로 인해 탐진치로 삼독심으로 가득 채워진 몸과 마음을 진여본성의 불성에 의지하여 계정혜 삼학으로 매 순간 훈습(薰習)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부처님 같이 청정하고 밝은 마음으로 진여본성을 스스로 깨닫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실상을 모두 깨달아 마음의 장애를 벗어나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힐링하는
자비의 한 걸음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최첨단 특수극세사원단을 사용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관절과 무릎을 보호하고
피로도 감소 및 미끄럼 방지 등 안전 보행을 약속합니다.
에르코스의 최첨단 기술과 자비의 마음을 담아
내구성이 뛰어나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er ercohs 에르코스 포행화

무료주문전화 080-848-7777
불교신문 기획사업부 02-730-4489(단체주문)

